

세계적 양질의 환상적인 콘텐츠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임팩트 다이내믹스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 인터넷회원 가입 **최고 3만원**까지 할인가능

▶ 예약: www.hpdmnasty.co.kr 061320-7700, 7714



D-5

## 체전 100배 즐기기

### <3> 개회식 전·후 행사와 부대 행사

■ 그림으로 미리 본 개회식 장면



광주체전 성화 무등산 정상서도 채화 임우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오른쪽)과 주선녀 채미옥씨가 2일 오전 10시 무등산 정상에서 채화된 성화를 들어올리고 있다. 마니산과 국립 5·18묘지에 이어 마지막으로 채화된 성화는 이날 오전 11시40분 광주시청 광장 보존 성화로에 안치됐다. /나령주기자 mjna@kwangju.co.kr

# 개회식 '빛의 교향곡' 최첨단 장비 총동원

2일 오전 광주 무등산 정상에서 제88회 전국체육대회의 마지막 성화가 채화, 5일 앞으로 다가온 전국체전의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체전을 알리는 성화 봉송과 체전의 하이라이트인 개·폐회식, 체전내내 경기장 주변에서 펼쳐지는 각종 문화공연 등으로 광주는 '불거리 천국'이 된다.

무등산 정상에서 채화된 성화는 이날 오전 11시40분 광주시청 광장 보존 성화로에 안치됐다.

이날 마지막 성화인 문화예술의 불이 시청광장에 안치됨으로써 체전 3곳의 성화 마니산, 국립5·18민주묘지, 무등산)가 모두 채화됐다.

3곳에서 채화된 성화는 오는 6일 오전 10시 시청 앞 광장에서 시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화 합화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는 채화 영상상영, 경과보고, 칠선녀상무, 성화합화, 축하공연, 봉송출발식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합화된 성화는 전국체전 조직위원장인 박광태 광주 시장이 성화봉을 첫 주자인 김정은(15·광주체육중 2학년, 전국소년체전 육상 대표)에게 건넨 뒤, 3일간에 걸쳐 680명의 봉송주자에 의해 광주 일원 130km를 돌아 개회식인 8일 주경기장 월드컵경기장 성화로에 점화된다.

특히 8일에는 전 체조 국가대표 선수인 여흥철과 인기가수 김원중이 봉송주자로 나선다.

전국체육대회 하이라이트인 개회식 공개행사는 오는 8일 오후 5시부터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성대히 개최된다.

개회식은 '빛의교향곡(Symphony Of Light) #무등 1187'이라는 주제 아래 광주의 상징이자 미래를 담은 '빛'을 교향곡으로 표현할 예정이다. 교향곡 번호인 무등 1187은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 높이다.

특히 이번 공개행사는 지금까지 전국체전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최첨단 시스템의 경연장이 될 예정이다.

우선 국내 체전 사상 최초로 본부석 건너편에 가로 88m·세로 22m의 와이드스크린이 설치되고, 경기장 캐노피 상공에서는 와이어액션이 펼쳐진다. 또 옛 전

남도청 앞 광장에서의 전통 고싸움이 월드컵경기장에서의 디지털 고싸움으로 연계돼 연출되는 한편 88인조 국악·양악 오케스트라 협연 등 풍성한 볼거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개회식 공개행사에 이어지는 주제공연인 식후 공개행사는 빛의 터전인 광주가 상생의 기운으로 사랑의 땅을 일구어 나가다가 시련(5·18)의 시간을 맞는다.

하지만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어미의 사랑으로 이를 극복하고 무등산, 남종화 등 남도의 아름다움으로 광주의 미를 완성함과 동시에 아시아를 품고 선도해 나갈 찬란한 빛으로 승화해 가는 과정을 총 4악장으로 나눠 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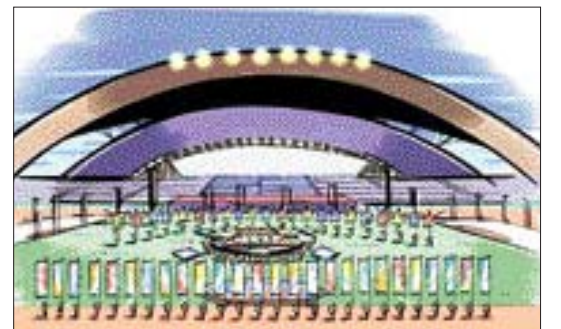
7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폐회식은 석별의 아쉬움을 담은 여인의 춤사위에 맞춰 선수단과 자원봉사자, 전 출연진이 어우러져 강강수월래로 빛의 고리를 만들면서 대동한마당을 이루고, 인기 가수들의 축하공연으로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더불어 선수단이 가장 많이 찾는 월드컵경기장 정문광장을 '이벤트 광장'으로 조성해 시·도 및 기업체 홍보관, 전통 향토음식전, 농특산물 전시장 등을 운영함과 동시에 특별무대에서는 크고 작은 공연이 체전 기간 끊이지 않고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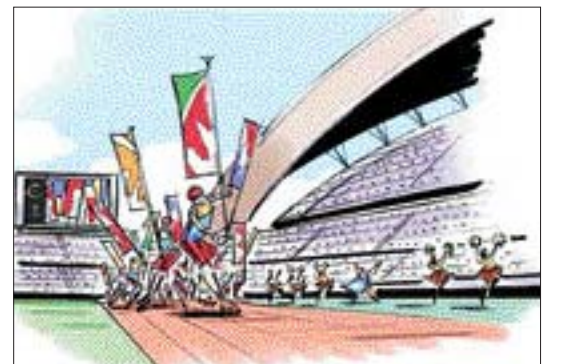
이곳에서는 거리마술과 석고 마임, 피에로 공연 등 거리 퍼포먼스가 하루 4차례, 당게는 10차례까지 열린다.

또한 남사당 공연과 B-boy공연, 타악 퍼포먼스, 청소년을 위한 퓨전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도 선보인다. 대형 붓글씨 쓰기과 건강 줄넘기 대회, 길거리 패션쇼 등 가벼운 볼거리나 참여 마당도 준비돼 있다.

한편 체전을 전후해 열리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5일~11월3일) ▲광주충장로축제(9일~14일) ▲광주김치대축제(17일~21일) ▲정음성 국제음악제(19일~21일) ▲광주고싸움 축제(8일) 등의 문화예술 행사도 손님들에게 색다른 경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① 식전행사-광주의 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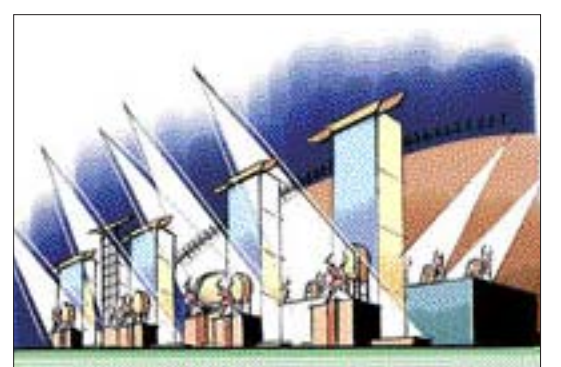
② 개회식-선수단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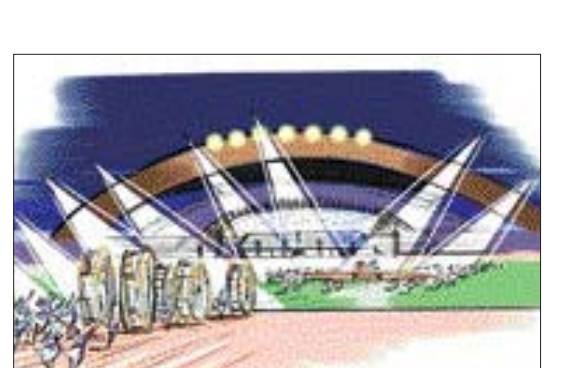
③ 개회식-선수대표 선서



④ 식후공연-서곡 '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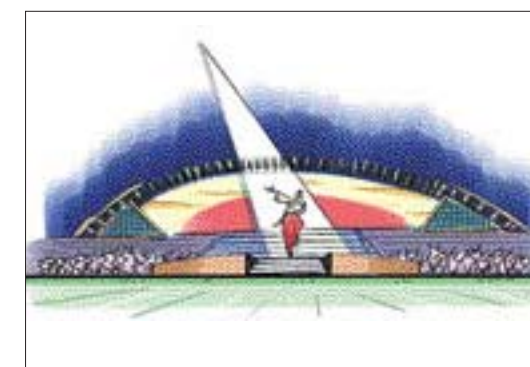
⑤ 식후공연- '빛의 터 광주'



⑥ 식후공연- '혼돈'



⑧ 식후공연- '무등의 사계'



⑦ 식후공연- '어미의 사랑'

## 꿀찌 KIA "마무리는 멋있게"

“유종의 미를 거두자”

지난 2005년 이후 2년만에 꿀찌로 주저앉은 KIA가 최종 3연전을 안방에서 치른다.

KIA는 지난 1일 열린 2007 프로야구 삼성전에서 패하면서 50승72패 1무가 돼 남은 3경기과 상관없이 최하위로 확정됐다. 똑같이 3게임이 남은 7위 롯데와의 승차는 -4게임이다.

이로써 KIA는 지난 2005년 최하위에 이어 지난해 4위로 점프했다가, 1년만에 다시 꿀찌로 추락하는 수모를 겪게됐다.

하지만 KIA는 남은 홈 3경기만큼은 승리로 장식, 마지막 팬서비스를 하겠다는 각오다.

KIA는 우선 3·4일 LG와 광주 2연전을 갖는다.

휴일인 3일엔 오후 2시, 4일엔 오후 6시 30분에 열린다.

KIA는 올 시즌 LG전서 5승 11패로 밀려있지만, 용병 선발 스코비와 '패속 좌완' 전병두를 출격시켜 전적의 사슬을 끊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LG와 3차례 맞붙은 스코비는 2승 1패(평균자책점 3.72)로 유난히 강한 면을 보이고 있고, 시즌내내 부상으로 해매던 전병두도 최근 두산전에서 선발승을 거두는 등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최희섭을 중심으로 한 타선도 막강하다.

최희섭은 최근 5경기에서 17타수 9안타(출루 3개), 5득점, 9타점, 타율 0.529의 맹타를 휘두르고 있고, 타격왕 경쟁이 한창인 이현곤과 '스나이퍼'

## LG·한화 상대 홈경기 승리 다짐 삼성, 사상 첫 11년연속 PS 진출

장성호의 패조의 타격감을 선보이고 있다. KIA는 LG전이 끝나면 이틀간 휴식을 취한 뒤 7일엔 속저 한화와 광주에서 시즌 마지막 경기를 갖는다.

한편 2년 연속 한국시리즈를 제패했던 삼성은 호랑이 군단을 제물로 11년 연속 포스트시즌에 진출했다. 삼성은 지난 1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KIA와 홈경기에서 승리, 4위를 확보했다. 삼성은 이로써 1997년 이후 11년 연속 '가을 드라마' 초대장을 손에 넣게됐다.

11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은 국내 프로스포츠를 통틀어 삼성 라이온즈만이 해낸 독보적인 기록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